

끝나지 않는 '왜곡'...5·18은 진행형

5·18기념재단 상반기 모니터링...949건 중 609건 삭제 조치

인터넷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5·18을 폭동으로 부르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내용의 표현물도 인터넷 공간 등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수정당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고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통합의 주춧돌"이라며 5·18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도 5·18 왜곡·폄훼 사례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5·18 관련 단체들도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5·18기념재단은 13일 "5·18 왜곡·폄훼 모니터링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총 949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삭제 조치 했다"고 밝혔다. 949건은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이나 댓글 또는

영상이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5·18 왜곡과 폄훼 내용을 담은 표현물이 다수 확인됐다. 5·18재단 관계자는 "건수로만 보면 한 달 평균 160건에 가까운 왜곡·폄훼 표현물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5·18재단이 확인한 949건의 왜곡·폄훼 표현물은 5·18을 폭동(726건, 77%)으로 부르거나 북한군과 관련돼 있다(139건 15%)는 주장을 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18 전개 과정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담은 표현(84건 8%)도 확인됐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제정해 시행 중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대한 비하도 여전히 있다. 극우 성향 인물들의 인터넷커뮤니티인 '일간베

스트(일베)'와 디씨(DC)인사이드 게시판에서의 5·18 왜곡·폄훼 사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이 저마다 SNS 계정을 사용하고, 개인 유튜브 방송이 대중화되면서 이들 인터넷 공간은 5·18 왜곡을 일삼는 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게 5·18재단 측 설명이다. 5·18재단 관계자는 "고령자와 청소년들 상당수는 유튜브를 신문이나 TV 뉴스처럼 언론으로 받아들이고, 5·18 관련 표현물(가짜뉴스)을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며 "5·18 왜곡·폄훼 영상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5·18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5월 한 달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가운데 '5·18민주화 운동'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34개 영상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표현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구 등 통신 민원을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취약계층 어르신 몸보신 하세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자원봉사자들과 북구청 직원들이 13일 오전 임동 봉사관에서 북구지역 취약계층 140여 가구민들에게 전달할 삼계탕과 열무김치를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김대중 전남교육감 첫 인사부터 '논란'

노조 "비리 연루 인사 총무과장에... 시설과장엔 전문성 결여 행정직"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취임 후 단행한 첫 정기 인사에서 비리혐의로 좌천됐던 공무원을 인사업무 총괄하는 요직인 총무과장에 기용해 논란이 있다. 전남교육청은 15일자로 총 138명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21면> 박영수 상성공공도서관장이 행정국장에 승진 발탁되는 등 전 교육감 시절 임명됐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와 관련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전임 교육감 측근들이 한직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원

만하고 안정적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본청 총무과장과 시설과장 인사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남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서 본청 총무과장으로 전보된 A씨는 직원 57명이 연루되며 전남도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 비리로 불리는 톨스크린 관급공사 수주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김대중 교육감이 지난 선거기 전 교육감 시절 청렴도 하락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은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지적이다. 시설과장도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직이 발탁되면

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정겨져 분자는 하급지 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6급 이하 하위직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신임 총무과장을 겨냥했다. 시설과장에 대해서는 "전남 대부분의 학교는 건축된 지 30-5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다년간의 학교 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직력을 배제하고 타 직렬을 보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빛고을 혁신학교'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예산 과다 투입 개선 등 운영 보완

'실력 광주'를 표방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체제에서도 빛고을 혁신학교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초·중·고교에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하면서 진보 교육의 상징이 됐다. 광주에서는 빛고을 혁신학교라는 명칭으로 초교 38곳, 중교 19곳, 고교 5곳 등 모두 67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3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몇가지 문제를 보완해서 혁신학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과다 투입돼 일반 모델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선해보고 학부모 의견도 반영해 혁신학교 운영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

학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일반 학교에까지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재정 부문 등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 학교 운영 핵심인 예산과 운영방식을 손질할 경우 전교조 등 진보 교육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급식종사자들이 반대하는 초등 1, 2학년 방학 중 무상급식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상 교육의 취지를 살려 여름방학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공평성, 형평성 문제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 출신인 이 교육감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반도체 인력 양성 내년 학부·석·박사과정 360명

전남대학교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반도체와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나선다. 전남대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투자와 인력양성 지원계획에 맞춰 학부, 석·박사과정에 반도체 학과(협동과정)를 신설하고 반도체 분야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과정 등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360명 규모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학부에서는 2023년부터 반도체 인제 육성을 위해 연계전공을 신설한다. 반도체 관련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도 인재양성 트랙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연간 선발 인원 200명 규모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학원에서도 반도체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또는 나노디그리 과정)을 운영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50명 규모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고려인마을, 고려종합예술학교 설립 추진

광주 고려인마을이 고려인 역사와 문화 전반을 계승하기 위한 고려종합예술학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고려인마을은 최근 고려인 강제이주 85주년을 맞아 국내 거주 고려인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려종합예술학교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고려사범대학·고려극장·고려일보 등은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 흩어진 고려인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들의 전통을 이어 광주 고려인마을을 거주자 7000여명을 비롯한 국내 정착 고려인 동포 8만여명, 해외 거주 50만 고려인들을 모을 거점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또 고려인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적인 인재를 양

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고려인마을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난민으로 전락한 고려인 동포 중 500여명의 국내 귀환을 도왔다. 고려종합예술학교를 통해 이들 중 문화 재능을 가진 이들을 발굴,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고려인마을은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테마 관광지구', '홍범도장군 기념공원' 등을 조성해 관광객을 끌어 왔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한민족 역사와 정신을 담아낸 문화를 배우며 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중앙아시아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특출한 문화를 대한민국에 소개하는 인재 양성 교육기관이 될 종합예술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